

석유화학, 집단 여름휴가 “거부”

울산, SK에너지·S-Oil·삼성4사 동참 안해 ... 장치산업 특성으로

울산 소재 석유화학기업들이 여름 집단휴가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 S-Oil 등 석유화학기업들은 365일 가동해야 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집단휴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삼성정밀화학, 삼성비피화학, 삼성석유화학 등 울산 소재 삼성 계열기업들도 따로 집단휴가는 실시하지 않고 임직원이 연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최대 13일간의 여름 집단휴가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7월27일-8월8일, 현대자동차는 7월27일-8월4일 여름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대미포조선은 8월3일부터 8월11일까지 9일간 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철 전력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휴가기간을 어긋나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8월 전력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시한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0>